



2013
다문화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체험
결과보고서



2013
다문화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체험
결과보고서





2013
다문화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체험
결과보고서

- 발행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발행일

2013. 12

- 사업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공동주관

파주문화원

파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교육주관

연희단 팔산대

- 후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파주시체육회

- 문의

Tel. 031. 239. 1020

Fax. 031. 239. 3785

<http://www.kccfgg.or.kr>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 있습니다.

- 본 책자는 『2013년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Contents

•
4_{page}
01. 사업배경

•
8_{page}
02. 사업개요

•
10_{page}
03. 세부사업내용

•
16_{page}
04.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
22_{page}
05. 보도자료

•
24_{page}
06. 활동사진

•
32_{page}
07. 교육지도안



사업배경

지속적이고 중, 장기적인 교육을 통한 변화

처음에는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한 5회 공연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회의의를 거듭하며 단순히 일회적인 공연으로 문화적 쇼크를 주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해 점진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다문화인들이 한국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하여 주1회 총 16회의 교육과 1회의 캠프, 3회의 공연으로 이루어진 교육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상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다문화인이 전통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한국전통문화를 경험하고 프로단체인 팔산대와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였다. 다문화인들은 한국문화의 역사가 담겨 있는 한국전통예술에 대해 배우며, 가장 한국적인 것, 한국의 속살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팔산대는 가, 무, 악(歌, 舞, 樂) 일체의 단체이기에 다문화인들에게 한국전통예술의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졌다. 한국의 노래, 춤, 악기를 두루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팔산대에게는 나와 다른 남을 이해하고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배우는 것이 필요했다. 모든 생활을 함께하는 합숙훈련단체 팔산대에게 무대 아래 그것도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사회성을 쌓으며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는 중요한 일이었다. 일방적인 수혜가 아니라 서로 호혜하며 배우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이다.

사업의 대상은 다문화가정자녀→다문화가정 자녀와 어머니→결혼이주여성으로 변화가 있었다. 당초 계획했던 자녀들의 경우 교육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했기에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20~30대 미혼여성으로 구성된 예술인집단 팔산대와 20대~40대 기혼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팔산대 오색찬란팀은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며 서로의 삶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파주문화원에서는 본 사업을 홍보하고 공동진행하였다. 파주시의 가장 유서 깊은 행사 율곡문화제에 팔산대와 다문화팔산대 오색찬란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해 주었다.

파주시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모으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문화가족문화제와 다문화가족센터수료식의 공연기회도 주었다. 파주시체육회에서는 적합한 장소를 대여해주었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의 도움으로 일회적인 공연이 아닌 중, 장기적인 교육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왜 전통문화예술교육인가?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대부분은 한국어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은 취업을 위한 취업준비교육을 들 수 있다.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언어나 취업 등 한국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교육이 대다수를 이룬다. 취미나 여가생활을 위한 교육도 존재하지만 그 수가 적고, 특히 전통예술을 교육분야로 삼는 경우는 드물다. 먹고 살기 바쁜 시대에 밀릴 수밖에 없는 예술분야, 그것도 한국인들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전통문화예술분야를 다문화인에게 교육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을 시작하기 전 협력기관인 파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계자는 “우리 결혼이주여성들은 음치, 몸치가 많아요.”라며 우려를 표했다.

파주문화원 관계자 또한 “팔산대를 믿고 교육을 시작하는 거지만, 그들이 과연 좋아할까요?”라고 물었다.

음치와 몸치는 타고 난 것이 아니다. 음치는 제대로 못 듣는데서, 몸치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연유에서 기인한다.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 온 이들이 마음을 쉬이 열지 못하는 것이 음치와 몸치를 만든 것이다.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치유해주는 것이 예술교육의 효과 중 하나이다.

그 외에도 전통문화예술교육은 참여자들에게 앞으로 적응해야 할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새로 습득해야 할 언어 학습에 도움을 주며,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전통문화예술을 매개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표출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 간의 공감대를 확산시

킬 수 있다. 전통문화예술을 통한 자기표현은 문화 예술적 감수성을 높여 주고 현재의 삶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부여한다. 문화예술을 통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주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또한 같은 생산 현장에 모여서 작업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결혼이주 여성들은 결혼한 가족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흩어져 있다. 이들이 종교 단체 모임이나 국적별 자조모임의 유형으로 가끔씩 만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 현장은 같은 처지의 결혼이주여성, 같은 국적의 여성들이 모이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문화 팔산대 오색찬란은 풍물, 민요, 무용을 교육내용으로 삼았다. 이 세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사회를 기반으로 한 풍물은 더욱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예술이다. 서로의 호흡이 같아져야 소음이 아닌 음악이 되고 춤이 된다.

무용 또한 마찬가지다. 부채춤 같은 군무의 경우에 한 명 한 명이 오롯이 서지 않으면 꽃이나 파도와 같은 그림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민요 또한 메기고 받는 형식이라 창자가 여러 명일수록 신이 난다. 민요는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데서 기인하였기에 자기를 표현하는 게 생명이다. 무의식적으로 자꾸 숨으려 하고 감추려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마음을 여는데 민요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한국의 전통문화예술은 한국의 내면까지 아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여러 명이 함께했을 때 오는 자아존중감 향상, 내적인 치유, 소속감과 협동심 증강, 결혼이주여성 간 네트워크망 형성 또한 부수적으로 따라오기에 전통문화예술체험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색찬란한 우리의 한국, 모두가 함께 모여 꿈을 이루세

위의 문장은 다문화팔산대에서 만든 진도아리랑 가사이다. 지금부터 쓰는 이야기는 꿈을 찾아 이 나라에 온 결혼이주여성들과 꿈을 이루어가는

연희단 팔산대가 만나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전통문화예술 속에
깃든 우리 고유의 정서를 오늘날에 되살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들만의 감성으로 전통문화예술을 재창조하는 현장을 보여주려 한다.



사업개요

1. 사업명

2013 다문화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체험

2. 목적

- 1)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의 말과 역사, 전통이 깃든 전통문화예술을 배우며 한국사회, 문화에 대해 알아가고 적응할 수 있게 한다.
- 2) 결혼이주여성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땅의 문화와 전통예술을 경험하게 함으로 공동체정신을 함양하고 자아정체성을 발달시킨다.
- 3)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좋은 사례를 만들고, 예술가들이 미치는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짚어본다.

3. 개요

- 1) 사업기간 : 2013년 3월 ~ 12월
- 2) 사업지역 : 경기도 파주
- 3) 주 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4) 공동주관 : 파주문화원, 파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5) 사업진행 : 연희단 팔산대
- 6) 후 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파주시체육회

4. 사업 추진개요

일 정	추진내용
4월	기획회의, 주관문화원 선정
5-6월	교육프로그램개발, 교육장소선정, 참가자 모집
7월-12월	교육진행, 공연관람, 캠프, 발표공연
12월	평가 및 보고서 작성

5. 주요 교육내용

분 야	주요 교육 내용
풍물	악기연주와 합주, 상모돌리기, 풍물공연관람
민요	각 지역의 민요부르기와 가사 창작
무용	춤의 7단계와 부채춤 익히기

6. 기대 효과

- 1) 결혼이주여성이 전통문화예술을 접하며 한국사회, 문화에 대해 알아가고 적응하면서, 자아정체성이 발달되고 문화감수성이 향상
- 2) 공동체의식이 근간이 되는 전통문화예술을 체험하며 심리적 안정과 협동성, 타인 이해성, 자율성 증진
- 3)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전통예술의 교육을 넘어 민족의 정신을 공유하며 진정한 한민족으로의 융합을 이룸
- 4) 향후 끼 있고 재능 있는 다문화 자녀를 발굴, 육성하여 세계적인 인재로 키워내는 시발점이 됨



세부 사업내용

1. 추진단계별 세부내용

추진단계	일 정	추진내용
사업계획, 단체선정	4월	· 수행단체 선정 · 기획회의
지역네트워크구성	4월 - 5월	· 주관문화원 선정 및 주관 지역 내 네트워크 구성 · 프로그램 및 교안 확정
대상모집	6월	· 문화원 및 네트워크 기관을 통한 참가자모집 · 교육진행사항(장소/인원/특성 등) 확인
교육진행	7월 - 12월	· 교육 진행, 캠프 실행, 공연 실연 · 지속적 자체평가 및 보완
평가 / 보고	12월	· 수료식 ·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1) ① 단계 - 사업기획 및 단체선정

(1) 사업 필요성 검토

- 경기도 관계자 및 경기도 문화원 임직원들과 다문화인의 전통문화예술체험 필요성 공유

(2) 사업방향 설정을 위한 수행단체와 기획회의의 진행 (4/4, 4/15)

- 2010~2012년 다문화 사업 시행 성과 및 개선/반영사항 검토
- 일회적인 공연이 아닌 교육을 통한 변화

- 참가자들이 교육 후에도 가정 또는 직장에서 누릴 수 있는 전통예술 보급
- 팔산대와 다문화인과의 collaboration(협업)을 통한 공연을 계획

2) 2 단계 - 지역네트워크 구성

(1) 주관 문화원 선정

- 사업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사업주관 문화원 선정

(2) 사업 주체 간 기획회의(프로그램 보완, 장소물색)

- 일시 : 2013년 4월 24일 11시
- 장소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실
- 참석자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담당자, 파주문화원 담당자,
파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연희단 팔산대 담당자
- 내용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세부 프로그램 설명 등

(3) 교육 프로그램 보완/확정

- 일시 : 2013년 5월 7일 11시
- 장소 : 파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참석자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담당자, 파주문화원 담당자,
파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연희단 팔산대 담당자
- 내용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교육프로그램 설명, 장소 답사 등

3) 3 단계 - 대상모집

(1) 사업 참가대상 모집

- 참가모집 게시물 공고 및 현수막 게시
- 파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 회원 중심의 인원모집

(2) 교육일시 및 참가대상 확인

- 매주 화요일 13:00~15:00 파주스타디움으로 확정
- ※ 참가대상 일정을 우선 배려하여 선정
- 결혼이주여성 10명으로 참가대상 확인

4) 4 단계 - 교육진행

(1) 일정별 교육 진행(교육, 캠프, 공연관람, 공연실연 진행)

- 추후 변동사항 반영을 위한 대상기관 담당자와 지속적 협의 진행

(2) 자체평가

- 단위별 교육 종료 후 자체평가/보완사항 도출

※ 차주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면담조사 실시

5) 5 단계 - 평가/보고

(1) 교육평가

- 자체평가 : 매 교육 종료시

- 파주문화원 : 교육 진행일 현장 면담 및 전화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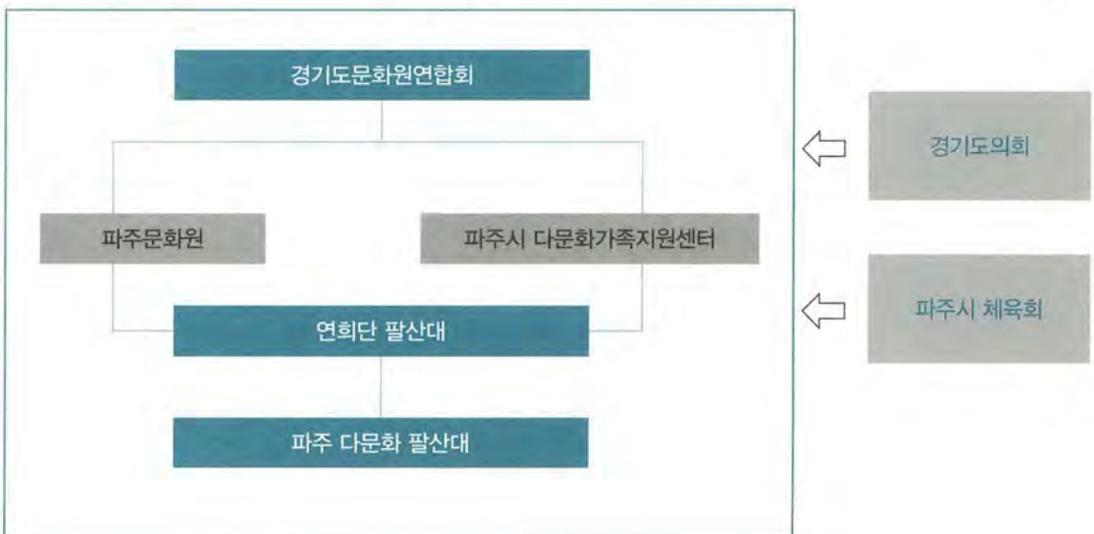
- 파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교육 진행일 현장 면담 및 전화면담

(2) 결과 보고서 제출

- 사업 주관단체의 결과보고서 및 교안 제작/제출

2. 사업체계 구성

1) 사업체계도



2) 주요 업무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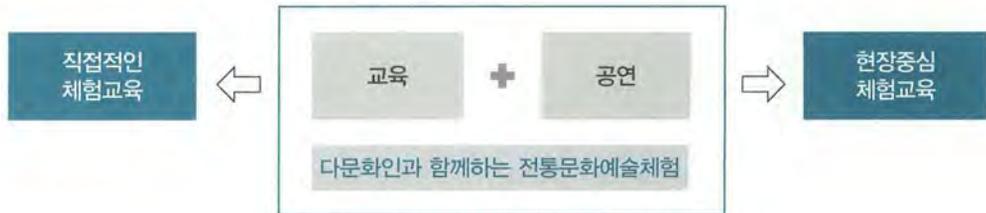
단 체	주 요 업 무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사업총괄기획 및 진행 · 예산 집행 및 정산
파주문화원, 파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참가대상 모집 및 세부 협의 · 프로그램 진행 / 운영
연희단 팔산대	· 교안 및 프로그램 개발 · 교육 운영 및 결과보고 / 교안제작

3) 교육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인 원	소 속 / 담 당 분 야
총괄강사	1	· 연희단 팔산대 대표, 채상소고춤의 명인 · 교육 총괄진행 및 주강사
풍 물 요	5	· 연희단 팔산대 단원 · 풍물 교육진행 및 풍물연주 · 민요강사 및 민요공연
무 용	5	· 연희단 팔산대 단원 · 무용강사 및 무용공연
택 건	1	· 중요무형문화재 제 76호 택견 이수자 · 캠프 특강 진행
총인원	12명	

3. 교육 프로그램

1) 교육 구성



(1) 직접적인 체험교육 :

전통문화예술에 관한 추상적 지식 획득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통 문화예술을 직접 듣고, 보고, 배우며 한국의 원형적인 문화와 정서를 겪어낸다. 강사와 학생의 일대일 교육으로 몸을 부대껴가며 체득한다.

(2) 현장중심 체험교육 :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단순히 악기를 쳐보는 체험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투영해 무대에 서는 경험을 해봄으로써 자아정체감을 증강시키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

2) 교육 프로그램 구성

예술분야	교육분야	교육 중점
풍물	악기연주 악기합주 상모돌리기 공연	상모로 몸의 기본 원리를 터득하며 악기를 연주하고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합주하며 앙상블을 이룬다.
무용	춤의 7단계 (버숨새 만들기) 부채춤 공연	일상 속에서 춤의 7단계를 실현하여 응용작품인 부채춤을 춰본다. 민요 속 발림으로 공연하여본다.
민요	경기민요 경상도민요 남도민요 공연	각 지역 민요의 특색에 맞추어 노래해본다. 일상생활에서도, 공연장에서도 민요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한다.

4. 교육일정

일 자	차 시	주 요 교 육 내 용
7 / 16	1 차 시	오리엔테이션
7 / 23	2 차 시	
7 / 30	3 차 시	체험형 워크숍 (풍물)
8 / 6	4 차 시	체험형 워크숍 (무용)
8 / 13	5 차 시	체험형 워크숍 (풍물&민요)
8 / 20	6 차 시	체험형 워크숍 (무용)
8 / 27	7 차 시	체험형 워크숍 (풍물)
8 / 29	특 강	민 요 특 강 (파주 율곡문화제 준비)
9 / 3	8 차 시	체험형 워크숍 (민요)
9 / 5	특 강	민 요 특 강 (파주 다문화가족축제 준비)
9 / 10	9 차 시	체험형 워크숍 (민요)
9 / 12	공연관람	LG아트센터 <해어화> 공연관람
9 / 14~15	캠 프	1박 2일 오색찬란 캠프
9 / 17	10 차 시	체험형 워크숍 (강강술래&민요)
9 / 24	휴 강	
10 / 1	11 차 시	체험형 워크숍 (무용)
10 / 8	12 차 시	체험형 워크숍 (무용)
10 / 10	특 강	파주가족문화제, 파주율곡문화제 리허설
10 / 12	공 연	파주가족문화제 공연 파주율곡문화제 공연
10 / 15	13 차 시	체험형 워크숍 (민요)
10 / 22	14 차 시	체험형 워크숍 (풍물)
10 / 29	15 차 시	체험형워크숍 (판소리)
11 / 5	16 차 시	증강 & 기념촬영
12 / 3	특 강	파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료식 공연 준비
12 / 9 12 / 10 12 / 12	공 연	파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료식 공연
12 / 19	수 료 식	파주문화원 파주오색찬란 수료식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1. 사업추진성과

1) 다양한 장르의 전통문화예술교육 실시로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

워크숍, 캠프, 공연관람, 공연실연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워크숍을 통한 공연실연은 참여자가 집중력 있고 깊이 있게 전통예술을 경험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통예술은 특히 노래, 춤, 악기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참여자들은 가무악 일체의 전통예술을 다양하게 경험해봄으로써 다방면의 지식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다.

2)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적 유대감 형성에 기여

“전과는 달리 TV에 국악이 나오면 채널을 고정시키고 보게 되요.”

(김지희, 27. 캄보디아)

“시아머니가 그 노래 어디서 배웠냐고, 너무 좋아하세요.”

(루비, 36. 인도네시아)

“못해도 당당하게 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좋아해요. 우리가 이렇게 연주하는 거 잘 못한다고 싫어하지 않아요.”

(마유차 벤즈, 40. 태국)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의 전통은 낯생 처음 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자세가 한국 춤의 기본이자, 마음이다. 정성을 담은 한국의 춤을 익히기 위해 평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을 교육함으로써 삶 속에 예술이 배어들게 하였다.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한국의 가락과 노래를 흥얼거리며, 지인들로 하여금 학습자 본인 또한 문화적 유대감이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3) 지역 중심의 축제에 참가하여 지역의 다문화인에 대한 인식 개선

“파주 오색찬란 팀이 참 인상깊었다며, 다른 축제에 러브콜 받았어요.”

(전미란, 39. 파주문화원 과장)

파주에서 가장 유서 깊은 축제 파주 율곡 문화제의 길놀이와 우리 놀이 한마당(메인공연)에 초청받았으며, 500여명이 참여하는 파주가족문화제에서도 오프닝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특히 율곡 문화제의 시민길놀이에는 팔산대와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이 함께하며 최고의 팀으로 호평을 받았다.

독립적인 공연이 아닌 다수의 지역주민들을 관객층으로 삼은 지역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다문화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4) 전문예술공연단체 팔산대,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의식 형성

→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도 교육 영향 미치

“우리 아이가 더 잘해요. 집에서 흥얼거리고 있으면 와서 더 크게 불러요. 지금 6살이니까 한 살만 더 먹으면 합숙소로 보내도 될까요?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 예술을 전공했으면 좋겠어요.”

(양춘선, 42, 중국)

“우성이와 기성이가 전통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크리스, 38, 브라질)

“한국전통을 전해준다고 시작했는데, 우리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지 않아? 무대 위에 서는 것과는 또 다른 기쁨이 있더라.”

(서은숙, 31, 팔산대 단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대상이었다. 자녀들의 경우는 수업을 청강하러 왔다가, 캠프에 참여하였다가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게 되어 자연스럽게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팔산대의 장기적인 목표이기도 했다. 팔산대에서도 매회 교육이 끝난 후 자체 평가가 있었는데,

시작할 때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 끝날 때 더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되었다.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후의 변화들을 보며, 공연으로는 미처 보지 못했던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5) 다문화인을 위한 전통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개발, 확대 가능성

“앞으로 심심해서 어떡해요. 처장님,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어요, 내년에도 하는 거지요?”

(누멘트 낸시, 41. 인도네시아)

참가생들은 모두 내년을 기약했다. 사업을 공동주관하였던 파주문화원 우관제 원장님은 “사업성고가 좋다.”며 “나도 전에 팽맥이를 쳤었는데, 이렇게 다문화가정이 우리의 악기를 연주하니, 참으로 새롭다.”며 내년을 기약하셨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사숙 팀장님 또한 이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며 수강생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셨다.

일회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다문화 사업의 돌파구로 이 사업을 계획하였다.

사업을 수정, 보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2. 교육개발 성과

1) 워크숍

주 1회 2시간씩 16주에 걸친 워크숍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대일의 학습으로 강사와 참가생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예술을 넘어 서로의 삶을 배울 수 있었다.

함께 합창, 합주, 군무를 하며 단순히 따라하는 것을 넘어선 '겪음'으로 학습을 하였다.

풍물, 민요, 무용 세 파트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풍물파트에서는 춤의 7단계를 삶 속에서 습득하는 방법을 배우고, 한국의 대표적인 장단인 덩덕쿵이와 자진모리를 서서 합주하였다. 상모를 돌리는 법을 익히며 몸을 쓰는 원리를 익히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호흡법을 익혔다.

민요파트에서는 각 지역의 민요 특색에 맞게 노래 부르며 손장단을 쳤

다. 각 나라의 전통민요를 불러보며 특징을 찾아보기도 하였고, 그 노래에 얽힌 사연들 또한 함께 나누었다. 한국 전통민요에 자기의 처지나 마음을 실어 가사를 지어 부르기도 하며, 속이 후련하게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였다. 참가생들의 마음을 여는데 효과적이었다.

무용에서는 춤의 7단계를 바탕으로 부채춤을 익혔다. 함께 꽃이나 파도 모양을 만들어가며 협동심을 기르고, 문화감수성을 길렀다.

2) 오색찬란캠프

현재 교육받고 있는 가무악이 실제로 공연되는 현장을 접하는 공연관람으로 시작되었다. 현역 예술가인 교육자들의 삶의 모습과 한국적인 연희관의 분위기를 충분히 엿볼 수 있도록 공연 전후과정까지 두루 살폈다. 이번 캠프는 팔산대의 하루 일정을 교육생들이 온전히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새벽 6시, 등산과 택견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무武와 무舞는 통한다는 말이 있다.

전통무예 택견을 통해 몸과 마음의 무게중심을 찾고 부드러움 속의 강인함이 자세에 뻗 수 있도록 하였다.

오전 9시, 채상소고춤의 김운태 명인의 명인특강이 있었다. 상모를 돌리고 상을 다듬는 과정에서 전신의 감각을 살리고 힘을 바르게 운용하는 법을 배웠다.

김운태 명인의 '춤의 7단계' 교육법을 참고, 한국적인 비습새와 몸짓을 느끼며 '태態'가 나는 몸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이외에도 악기체험과 전통놀이 강강술래를 포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한국전통문화의 고갱이를 모아 교육생들로 하여금 한국전통문화 예술을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캠프에서는 교육생들에게 주1회 수업시간 이상의 심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고, 교육생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여 관심사를 공유 및 저변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생과 교육자들 간의 유대감 강화로 口傳心授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었다.

3) 공연 관람

공연을 직접 관람하는 것만큼 큰 예술교육은 없다.

〈해어화〉와 〈여민락〉을 관람하며 전통예술을 좀 더 좋아하고, 이해하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

- (1) 9월 12일 LG아트센터에서는 예기들의 고별공연이 펼쳐졌다. 장근도, 유금선, 권명화 평균나이 85세의 예인들의 공연이었다. 이들의 공연을 축하하는 의미로 연희단 팔산대는 오프닝을, 김운태, 김정란, 하용부 등 당대 최고의 명무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파주문화원 임직원들과 파주오색찬란팀과 그의 가족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지금까지 본 공연 중 이렇게 감동적인 공연은 없었다며 매우 만족해하였다.

- (2) 다문화 캠프 중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열렸던 연희단 팔산대의 〈여민락〉을 보며 그간 학습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공연에 어떻게 쓰이는지 보게 되었다. 본 공연에는 다문화가정 자녀인 기성어도 함께하여 더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4) 공연 실연

무대에 서보는 체험은 배우는 것이 아닌 겪는 것이기에 전혀 다른 차원의 교육효과가 있다. 학습을 통해 얻은 결과물들을 대중 앞에서 보여주는 일은 참여생들로 하여금 자기표현의 기회이자 자아존중감이 증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파주 율곡문화제〉, 〈파주 가족문화제〉, 〈파주시다문화가족문화제 수료식〉 총 3회의 공연을 거치며 파주 다문화 팔산대는 진화하였다. 〈가족문화제〉에서는 팔산대의 진도북춤 공연과 다문화 팔산대의 민요 공연이 있었다. 미취학 자녀들과 함께 공연을 한지라 박수는 많이 받았지만, 아직은 가사가 낯설었다. 강사들의 삼현육각 반주와 커다란 목소리가 참가생들을 안고 갔다. 〈율곡문화제〉에서는 팔산대의 문굿, 판굿, 부채춤, 소리굿, 도살풀이 등의 메인공연과 팔산대와 다문화팔산대가 함께하는 길놀이와 민요공연이 있었다.

파주에서 가장 유서 깊은 행사인 만큼 다문화팔산대는 매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큰 무대를 처음 서본다며 가사를 잊어버리기도 하였지만, 많은 이들에게 다문화팔산대가 노력하는 아름다운 팀으로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다.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대중 앞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

3. 개선 및 건의사항

1) 본 사업에 대한 향후 대상기관 확대/ 지속적 시행 요청

본 사업은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깊이 있게 다문화인들이 한국전통문화예술을 겪으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사업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파주 지역뿐만 아니라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사업을 시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 교육대상 확대

다문화가정의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전통예술체험이 있으면 어떨을까?

자연스럽게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되기도 했지만, 방학기간을 활용 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이 되었다면 함께 연주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이점 또한 증가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공연관람프로그램 확대

모든 예술교육은 보고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보고 듣는 것이 재미있으면, 그 다음은 학습자의 몫이다.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싶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과 동행하지 않으면 공연을 보기 어렵다. 부부가 함께 공연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요청한다.



보도자료

1) 경기도문화신문(7월)



결혼이주여성들 한국 전통춤 가락 배우기 나섰다 파주 다문화연합회 '오색찬란' "실력 쌓아 공연 도전"



파주시 다문화연합회 오색찬란연합회 첫 연습을 기념해 사진을 찍었다.

“어려울 것 같고 힘겨워요.”

7월 16일 파주스타디움 선수대기실에는 한국 전통춤 배우기 위해 결혼이주여성 10명이 모였다. 배울 장소가 파랗치 않아 이 곳 선수대기실을 빌렸지만 바깥마음은 열려가 있었다.

“얼렁이 춤을 추면 얼렁 모두 춤이 다르고 표현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만 알려 드리면 스스로에게 가장 관한 동작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날 춤을 지도하며 온 김혜란(51)씨의 설명은 자상하게 이어졌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한국의 전통춤이 쉽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파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결혼이주여성 10명은 전통문화예술체험 '오색찬란'(五色燦爛)의 첫 모임을 가졌다. 다문화가족들에게 전통 문화예술을 알려주기 위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파주문화원이 진행하며 파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원을 담당했다. 교육은 전통연합회 '원산대'가 맡았다.

'오색찬란'은 여러 발걸이 한데 어울려 아름답게 빛난다는 뜻으로 다문화가족들을 염두에 둔 이름이다. '오색찬란'은 앞으로 총 16회에 걸쳐 가면을 다룬 뒤 공연에 나설 계획이다. 구성원 모두가 연주와 춤을 선보이는 '구장놀이' 방식으로 진행해 관객과 다정한 소통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본적인 춤사위를 위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시종일관 밝고 적극적인 모습이였다. 익숙하지 않은 동작들도 최선을 다해 따라 했다. 이유미(29세/브람)씨는 “고향의 전통춤 조차 배운 적이 없었는데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며 “응원해준 남편 앞에서 나중에 멋지게 실력 발휘를 해 보여겠다”고 말했다. 두명부 낸시(40, 인도네시아)씨는 “관소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는데 오늘 프로그램은 더욱 특별한 것 같다”며 “인도네시아에 있는 친지와 친구들이 한국의 전통 춤과 노래를 물어볼 때마다 할말이 없었는데 이제 기회가 생긴 것 같다”고 좋아했다.

총지휘를 맡은 원산대 박순재(24)씨는 “다문화가족들보다 많은 연합대원이 참석해 지도할 것”이라며 “노래, 춤, 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다문화가족들에게도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파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사숙씨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전통 춤과 노래를 공연한다면 많은 분들이 대견해 할 것”이라며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때 파주의 전통문화 수업을 널리 알려겠다”고 말했다.

파주/신성희기타

2) 파주저널, 파주가족문화제

파주 제6회 파주 가족문화제, 성황리에 열려 [2013-10-12 오후 3:33]

가족 사랑을 함께 나누는 '파주 가족문화제'가 12일 시민회관 대공
연장에서 열렸다.

올해 6회째를 맞은 행사에는 조순일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과
시민, 학생,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다문화발산대 리허설 사진

'함께 해서 행복한 가족, 어울려서 든든한 이웃'을 주제로 열린 행사
는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다문화발산대와 '사랑의 꿈 터' 지역아동센
터 합창단의 공연과 두원공과대 인형동아리의 인형극, 공군 8218부
대 장병의 남성3중창단 합창, 노인종합복지관 행복동 문화공연단의
스포츠 댄스, 금촌초등학교 난타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
으며 아기걷기대회에는 가족 3대가 출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
되기도 했다.

또한 가족 사랑을 담은 사진콘테스트와 다문화가정 체험, 아나바다
바자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조순일 센터장은 "가족사랑은 가족문제를 예방하는 첫 걸음"이라며 " (센터는) 가족교육, 가정문제 상담, 가족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 가족
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활동사진



- 오리엔테이션 - 음악과 춤의 원리



- 풍물 워크숍 - 일상생활 속 춤의 7단계 훈련



● 풍물워크숍 - 일대일 학습



● 풍물 워크숍 - 합주



● 풍물 워크숍 - 합동농악



● 풍물 워크숍 - 상모돌리기



● 민요워크숍 - 손장단치며 노래부르기



● 민요워크숍 - 발림하며 노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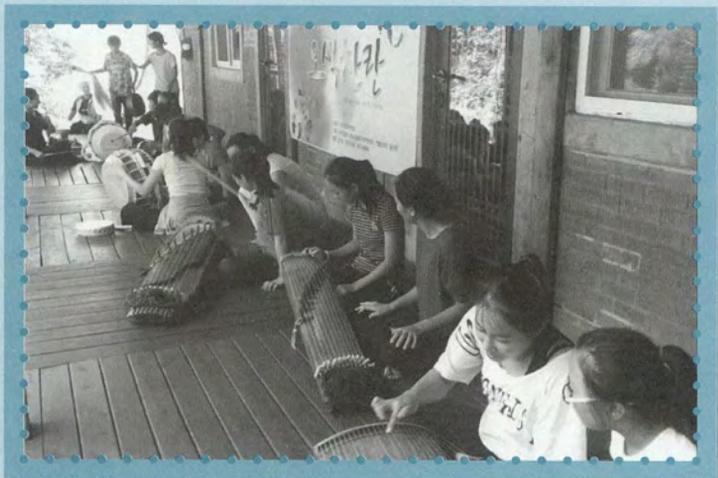
● 무용 워크숍 - 부채춤



● 1박 2일 캠프 - 인사동 공연관람



● 1박 2일 캠프 - 태권



● 1박 2일 캠프 - 악기 체험



● 공연 - 다문화가족문화제



● 공연 - 파주윙곡문화제 퍼레이드



● 파주울곡문화제 - 메인공연



● 파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료식



교육 지도안

(1) 1차시 : 7월 16일 (오리엔테이션)

강사명	김혜란, 백순재, 박보슬, 윤미정, 장보미, 이 송		
교육일자 (시간)	7월 16일 화요일 (13:00~15:00)	출석인원	10명
교육주제	오리엔테이션		
교육내용	<p>- 교육 목표 전체 프로그램 소개, 인사 나누기 한국 춤, 노래,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나의 몸 들여다보기</p> <p>- 교육 재료 시청각 자료</p> <p>- 교육 세부내용 오색찬란의 전체 교육 계획과 세부 일정, 그리고 수업을 주관하는 연희단팔산대에 대한 소개로 문을 열었다. 그 다음 사진 영상, 음악 등을 활용하여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을 미리 엿보게 하였고 감상 후 느낌과 생각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팔산대의 수업이 '작품'(Text)를 익히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노래, 춤, 연주를 행하는 각자 본인의 '몸'을 탐구하고 계발하는 것에 역점을 둘 것임을 알렸다. 그에 따라 다 함께 일어나 각종 몸 풀기 동작과 한국 춤 기본자세, 버슴새에 대해 배워 보면서 한국적인 감성과 맛이 뻐 몸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했다.</p>		
학습평가	<p>-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 지루하고 형식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되지 않기 위해 각종 시청각 자료와 더불어 직접 몸을 움직여 보는 시간을 준비하였고 편안한 분위기로 둘러앉아 이야기를 도란도란 잘 이어나갔다.</p> <p>- 교육생 학습 성취도 난생 처음 접해 보는 춤과 음악에 큰 호기심을 갖고 설레 했으며 각종 스트레칭과 자세 연구를 통해 몸의 감각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며 즐거워했다.</p>		

(2) 2차시 : 7월 23일

강사명	김운태, 장보미, 서은숙, 배지원, 박보슬, 이 송		
교육일자 (시간)	7월 23일 화요일 (13:00~15:00)	출석인원	11명
교육주제	기초 체력 다지기		
교육내용	<p>- 교육 목표</p> <p>풍물을 체험하기에 앞서 몸을 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의 개념을 강조하고 약기를 연주하는데 필요한 세심한 움직임 여부를 테스트한 후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한다.</p> <p>- 교육 재료</p> <p>시청각 자료</p> <p>- 교육 세부내용</p> <p>집에서도 쉽게 TV보면서도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알려주었다. 한국 춤의 기본적인 자세인 오금을 굽히면서 둥근 선이 나오는 자세와 중심을 잡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서서 공손히 손을 배에 대고 인사하기, 한 다리씩 들고 중심잡기, 바닥에서 엉덩이만 땅에 대고 V자 만들기, 누워서 다리 들었다 내리기 와 손가락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수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p>		
학습평가	<p>-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p> <p>강사들이 평소에 그대로 훈련을 해 왔던 부분이라 상세하게 자세를 잡아주고 알려줄 수 있었고, 학습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 주며 일주일간 복습할 것을 당부했다. 풍물은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제 경험하고 있는 강사들이 기초 운동을 함께 하면서 전달 해 줄 수 있어서 좋은 학습 시간이 되었다.</p> <p>- 교육생 학습 성취도</p> <p>생활에 적용하라는 주 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열심히 배웠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왔을 때 인사하듯이' '아이들과 TV시청하면서' 피부에 와 닿았는지 매우 흥미로워 했으며 가사에 지친 몸들을 잠시나마 자극을 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워했다.</p>		

(3) 3차시 : 7월 30일

강사명	김운태, 장보미, 서은숙, 배지원, 이 송, 윤미정		
교육일자 (시간)	7월 30일 화요일 (13:00~15:00)	출석인원	12명
교육주제	풍물 체험		
교육내용	<p>- 교육 목표</p> <p>지난 시간 배운 것을 확인 및 복습하고 악기를 메고 기본가락인 삼채를 연주 해 본다.</p> <p>- 교육 재료</p> <p>악기(쟁과리, 장구, 징, 북, 소고)</p> <p>- 교육 세부내용</p> <p>지난 시간 기초 체력을 다지기위해 했던 동작들을 반복하면서 가볍게 몸을 풀고, 각자 해 보고 싶은 악기를 선택하거나 주 강사가 성향에 맞는 악기 치배를 정해주고 몸에 메는 방법을 알려준다. 무조건 악기만 치는 것이 아닌 악기의 특성과 역할 쟁과리는 음악과 모든 치배들을 이끄는 역할, 장구는 음악을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연주자로, 징과 북은 음악을 감싸주는 엄마 같은 마음이 필요함을 알려주었다. 둥글게 서서 상쇠의 신호에 맞춰 삼채가락을 연주하면서 가락을 몸으로 익힌다.</p>		
학습평가	<p>-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p> <p>교육생들이 악기 메는 것만으로도 벽찬 부분이 있는데 이 시기가 지나야 풍물의 진미를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만나는 시간의 텀이 길고, 교육생의 성향에 따라 신나게 즐기고 금방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체버리려는 편자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 주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한국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보람됐다.</p> <p>- 교육생 학습 성취도</p> <p>우선 지난 시간 내주었던 숙제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각자 가족들의 반응도 주고 받으면서 스스로가 성취감을 느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있어서는 남미지역에서 온 교육생들은 특히 타악기에 관심을 보이는 적극성을 보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역할을 분담하는데 있어 서로의 긴밀함을 확인하면서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조금 힘들어 하기도 했지만 삼채 특유의 흥을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속박자를 한국 음악의 삼분박으로 맞추면서 하나됨을 느꼈다.</p>		

(4) 4차시 : 8월 6일

강사명	김혜란, 김소연, 장은진, 이현정, 이승훈, 윤미정		
교육일자 (시간)	8월 6일 화요일 (13:00~15:00)	출석인원	11명
교육주제	한국 전통 민속무용 '부채춤' 기초 다지기		
교육내용	<p>- 교육 목표 바른 몸 사용하기 소도구(부채) 활용법 인지하기</p> <p>- 교육 재료 시청각 자료</p> <p>- 교육 세부내용 스트레칭 및 한국무용의 기본 동작 손감기, 손매기, 짚은걸음, 돌기의 반복 연습을 통해 몸을 바르게 잡고 부채춤을 추기위해 필요한 움직임을 익숙하게 한다. 또한 부채의 다양한 활용법을 인지시킨 후 간단한 동작과 대형을 만들며 작품의 틀까지 구상해 보았다.</p>		
학습평가	<p>-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 주 강사와 4명의 강사가 1대1로 움직임을 교육생들을 지도하여 빠른 실력향상을 돕고 주 강사의 지시에 잘 따라서 수업을 진행시켜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갔다.</p> <p>- 교육생 학습 성취도 단계별로 진행되는 수업방식에 잘 응해주었고 개개인의 편차는 조금씩 있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부채를 잡는 것 뿐만 아니라 대형을 만들고 음악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p>		

(5) 5차시 : 8월 13일

강사명	김운태, 이 송, 서은숙, 배지원, 장보미, 백순재		
교육일자 (시간)	8월 13일 화요일 (13:00~15:00)	출석인원	8명
교육주제	소리의 발성과 상모체험 (상모 써보기, 무게를 느껴보기)		
교육내용	<p>- 교육 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전통성악의 발성을 터득한다. 2. 상모 추의 무게를 느껴본다. <p>- 교육 재료</p> <p>장단장구/ 상모, 꽃천, 흑포, 백선</p> <p>- 교육 세부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전통성악의 발성을 위해서는 중심과 분절이 중요하다. 정좌를 하고 앉아서 상체에 힘을 풀고, 단전에 힘을 모아 걸림 없는 소리를 내 본다. 하품을 할 때처럼 목구멍에 힘을 빼서 목구멍을 최대한 열어준다. 혀는 힘을 풀어 목구멍을 막지 않도록 하고, 얼굴의 하관은 떨어뜨려준다. 이 상태에서 멀리 지평선 너머로 소리를 내보낸다고 상상하고 소리를 끝까지 밀어내준다. 발성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반복한다. 2. 상모를 잘 쓰는 것이 상모를 잘 돌릴 수 있는 방법이다. 흑포를 눈썹 바로 위에 붙여 쓴다. 꽃천으로 꽃을 만들어준 다음, 상모를 뒷통수에 걸리는 부분에 닿도록 최대한 밀로 써준다. 이는 상모의 무게를 세밀하게 느끼기 위함이다. 백선과 귀가 삼각형을 이루도록 고정을 시켜준다. 앞생명선과 뒷생명선을 잘 맞춘 후 몸에 굴신을 주어 상모 추의 무게를 느껴본다. 이 추의 무게를 느끼게 되면 상모의 50%는 배웠다고 할 수 있다. 		
학습평가	<p>-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전통성악의 발성을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하품을 했을 때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과 비슷한 점이 많아 하품을 소재로 발성을 교육하였다. 2. 상모를 처음 쓸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강사와 교육생이 일대일로 상모를 써보게 하였다. 상모 추의 무게를 잘 느낄 수 있도록 몸의 움직임을 연결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p>- 교육생 학습 성취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품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발성을 가르치니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집에서 내보지 못하는 큰 소리라며 소리를 내보기 시작했다. 소리를 내는 행위는 마음을 여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상모를 처음 써보기 때문에 꽃을 쓴 자기의 모습이 신기한지 계속 거움을 보였다. 벼슬새라고 하는 모습이 무대에 서는 이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허벅지가 아프다고 할 만큼 열의를 보였다. 		

(6) 6차시 : 8월 20일

강사명	김혜란, 윤미정, 최민지, 장은진, 이승훈, 이현정		
교육일자 (시간)	8월 20일 화요일 (13:00~15:00)	출석인원	10명
교육주제	부채춤 기본 장단 익히기		
교육내용	<p>- 교육 목표 음악의 기초가 되는 장단 익히기</p> <p>- 교육 재료 시청각 자료</p> <p>- 교육 세부내용 춤은 장단을 타는 것, 즉 리듬감이 중요하므로 부채춤의 기본이 되는 굿거리 장단과 자진모리 장단을 직접 연주하여 들려주면서 인지하게 했다. 또 전 시간 배운 기본 스텝을 장단에 맞춰 로테이션 형식으로 반복 학습하였다.</p>		
학습평가	<p>-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 하나, 둘, 셋 넷 으로 카운트를 할 때와 장단을 치면서 할 때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교육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내용에 반영하였고, 주 강사의 선계획과는 달라 진도가 느린 부분도 있었지만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어서 성취도가 좋았으며 부 강사들이 유동성 있게 잘 따라와 주었다.</p> <p>- 교육생 학습 성취도 단순한 장단을 반복 학습 하여서 지루해하는 기색도 있었지만 움직임과 함께 하면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녹음음악으로 했을 때는 선율이 주로 들려서 기본박이 헛갈리고 장단이란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었다.</p>		

(7) 7차시 : 8월 27일

강사명	김운태, 이 승, 서은숙, 박보슬, 배지원, 장보미		
교육일자 (시간)	8월 27일 화요일 (13:00~15:00)	출석인원	8명
교육주제	한국의 근본가락, 덩덕쿵이로 놀아보자.		
교육내용	<p>- 교육 목표 악기를 메고 춤을 추며 덩덕쿵이 장단에 몸을 실어본다.</p> <p>- 교육 재료 팽과리, 징, 장구, 북, 소고</p> <p>- 교육 세부내용 한국인의 심장을 저절로 뛰게 하는 '덩덕쿵이'라는 가락이 있다. 이 가락을 듣게 되면 저절로 저절거리게 된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락을 연주하며 춤을 추어보는 것은 한국인 특유의 3분박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악기를 메고 직접 연주하고 춤추며 한국음악의 기본장단을 익힌다.</p>		
학습평가	<p>-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 이를 위해서는 직접 악기를 메고 뛰어보는 것만큼 좋은 학습은 없다. 강사와 교육생이 함께 악기를 메고 악기를 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좌도농악으로 같이 노는 것은 가장 빠르게 음악의 꼴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이다.</p> <p>- 교육생 학습 성취도 처음 접해보는 리듬에 처음엔 낯설어했다. 그대로 가락을 따라쳐야한다는 무의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허나 똑같이 치려 하지 말고, 첫박만 치면서 놀면 된다는 코멘트를 듣고 한걸 자연스레 악기를 메고 걸어다닐 수 있었다.</p>		

(8) 8차시 : 9월 3일

강사명	김운태, 이 송, 서은숙, 배지원, 장보미, 윤미정		
교육일자 (시간)	9월 3일 화요일 (13:00~15:00)	출석인원	5명
교육주제	각 지역의 아리랑 1 (경기, 경상도 아리랑)		
교육내용	<p>- 교육 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의 민요가 지역에 따른 특색을 가짐을 인지한다. 2. 경기도와 경상도(밀양)의 아리랑을 불러 본다. <p>- 교육 재료</p> <p>장단장구</p> <p>- 교육 세부내용</p> <p>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지역에 따른 고유한 음악색을 가지고 있다. 민요의 경우 특히 그 지역에서 쓰이는 방언에 따라 음악이 달라진다. 지역마다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아리랑이지만, 그 아리랑 또한 지역마다 다르게 불린다. 각 지역 아리랑을 비교, 분석하여 들어보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한국전통성악의 발성을 이용하여, 경기도와 경상도의 아리랑을 익힌다.</p>		
학습평가	<p>-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p> <p>여러 지역을 이야기하며 각기 다르게 부르는 것을 설명해주었다. 교육생들 대부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외에는 잘 몰랐다. 함께 풍류를 따라 여행하며 그 지역의 음악을 들려주면, 훨씬 이해가 쉽고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이다.</p> <p>- 교육생 학습 성취도</p> <p>민요에는 옛말도 많고, 한국 고유의 정서가 담겨 있는 노랫말이 많다. 가사를 자세히 풀어 설명해주어 이해를 도왔다. 처음이라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말들이 있었으나, 멜로디가 가진 독특성과 신선함 때문에 즐겁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다.</p>		

(9) 9차시 : 9월 10일

강사명	장보미, 이 송, 서은숙, 배지원, 윤미정, 백순재		
교육일자 (시간)	9월 10일 화요일 (13:00~15:00)	출석인원	10명
교육주제	각 지역의 아리랑 2 (전라도 진도 아리랑)		
교육내용	<p>- 교육 목표</p> <p>1. 한국의 민요가 지역에 따른 특색을 가짐을 인지한다. 2. 전라도의 진도아리랑을 불러 본다.</p> <p>- 교육 재료</p> <p>장단장구</p> <p>- 교육 세부내용</p> <p>두 차례의 특강으로 경기도 아리랑, 밀양아리랑과 진도아리랑을 학습하였다. 진도아리랑은 경기, 경상외의 아리랑과는 달리 깊이 떠는 요성이 많고, 격하게 켜거나 눌러서 내는 음들이 많아 좀 더 다이나믹하다. 한복을 입고 발림을 하며 노래를 불렀다.</p>		
학습평가	<p>-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p> <p>옷매무새가 달라지니 몸놀림이나 몸가짐, 마음 씩씩이가 달라졌다. 한복을 곱게 입어보는 것 또한 학습이었다. 노래를 즐겁게 부를 수 있도록 한복과 잘 어울리는 발림을 섞어가며 부르게 했다. 아이에게 잔소리할 때처럼 크게, 마음껏 소리 내는 걸 유도했다. 어디서 소리 지를 기회가 없는데 속이 다 후련하다고 말했다.</p> <p>- 교육생 학습 성취도</p> <p>결혼식 때 입어보고 처음 입어보는 한복을 입고 영상을 찍었다. 아직 지역에 따라 다른 시김새의 특성을 세밀하게 알아채지는 못하지만, 노래 안에 좋아하는 부분이 생길 만큼, 감정 이입이 되는 가사가 있을 만큼 많은 관심을 보였다.</p>		

(10) 10차시 : 9월 17일

강사명	장보미, 이 승, 서은숙, 배지원, 박보슬, 윤미정		
교육일자 (시간)	9월 17일 화요일 (13:00~15:00)	출석인원	8명
교육주제	강강술래를 하며 한국의 '우리'에 대해 인식한다.		
교육내용	<p>- 교육 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강술래의 역사적 전통을 인지하며, 노랫말을 익힌다. 2. 강강술래에 담겨있는 자유와 해방의 정신, 우리라는 한국 특유의 개념을 강강술래를 뛰어보며 익힌다. <p>- 교육 재료</p> <p>장단장구</p> <p>- 교육 세부내용</p> <p>강강술래는 조선의 일 년에 한 번 뿐인 무도회였다. 강강술래라는 작품에는 놀이와 노래 뿐 아니라 한국어인의 정신까지 깃들여 있다. 이러한 강강술래를 직접 체험해보므로써 '우리'의 가치와 자유와 해방의 정신에 대해 생각해본다. 또한 전통놀이를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반복되는 받는 소리를 배우며 장단의 꼴을 형성하며 익힌다.</p>		
학습평가	<p>-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p> <p>강강술래는 배우는 게 아니라 한 판 놀다보면 저절로 터득하게 되는 놀이이다.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의 문을 열어 실컷 소리 지를 수 있도록 도왔다. 마음을 열고 크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놀이였다.</p> <p>- 교육생 학습 성취도</p> <p>아직은 어렵다고 생각되던 한국의 전통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반복되는 받는 소리에 흥미를 느껴 집에 갈 때도 흥얼거리며 갔다. 소리를 지르고 마음껏 뛰는 것은 일상에서는 시도하지 않은 일이기에 속이 다 후련했다.</p>		

(11) 11차시 : 10월 1일

강사명	김혜란, 윤미정, 박보슬, 이 승, 서은숙, 배지원		
교육일자 (시간)	10월 1일 화요일 (13:00~15:00)	출석인원	7명
교육주제	반복학습 및 부채춤 순서 배우기		
교육내용	<p>- 교육 목표</p> <p>지난 시간 교육했던 한국무용의 기본 동작과 장단을 반복 연습하고, 본격적으로 공연에 필요한 순서를 차근차근 익힌다.</p> <p>- 교육 재료</p> <p>시청각자료</p> <p>- 교육 세부내용</p> <p>30분 정도는 전 시간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몸을 풀고, 부채를 들고 스텝과 손동작을 연결시키면서 순서를 익히게 했다.</p>		
학습평가	<p>-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p> <p>어느 정도 순서를 알려주고 부 강사가 교육생과 1대 1로 짝을 지어 숙지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 해 주었다. 몸 방향과 도는 동작, 부채 사용방법 등 기술적으로 익혀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교육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p> <p>- 교육생 학습 성취도</p> <p>순서를 나가기 시작 하면서 수업의 속도감이 생겼고, 교육생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았다. 부채로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밝은 분위기로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오늘의 학습 내용을 무난하게 소화 해 내었다.</p>		

(12) 12차시 : 10월 8일

강사명	장보미, 윤미정, 이 송, 서은숙, 배지원, 장보미		
교육일자 (시간)	10월 8일 화요일 (13:00~15:00)	출석인원	10명
교육주제	순서 익히기2		
교육내용	<p>- 교육 목표 부채춤 굿거리 부분 순서 익히기</p> <p>- 교육 재료 시청각자료</p> <p>- 교육 세부내용 부채를 각각 한 손씩 따로 사용하는 팔 감기, 부채 8자로 돌리기, 한 번에 펴기 등을 순서 나가기에 앞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 연이어 새로운 순서를 알려주었다. 특히 굿거리 부분에는 꽃, 파도, 산 등 형상의 대형을 만드는 것이 많으므로 다 같이 만들어보고 확인하는 학습을 추가적으로 하였다.</p>		
학습평가	<p>-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 대형들을 부 강사들이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고 각도를 대입시켜서 인지하게 하여 학습의 이해를 도왔다. 엄마를 따라온 어린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부분에서 통솔하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강사가 많은 덕분에 수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p> <p>- 교육생 학습 성취도 네 번의 반복적 학습을 통해 실력이 향상되었고, 단순히 그 뿐이 아닌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속춤을 배워본 것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수업에는 군무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어린 아이들도 함께함으로써 협동심 또한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다.</p>		

(13) 13차시 : 10월 15일

강사명	김운태, 이 승, 서은숙, 배지원, 장보미, 백순재		
교육일자 (시간)	10월 15일 화요일 (13:00~15:00)	출석인원	5명
교육주제	각 나라의 민요 (복습 및 공연점검)		
교육내용	<p>- 교육 목표</p> <p>1. 각 나라의 민요를 불러보고, 한국의 민요와 비교연구한다. 2. 민요의 장단과 시김새에 대해 연구한다.</p> <p>- 교육 재료</p> <p>장단장구</p> <p>- 교육 세부내용</p> <p>아리랑으로 공연을 하고 난 첫 만남이었다. 공연 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고 복습해보았다. 아직 시김새와 장단에 대한 이해가 미흡했기에 3분박의 개념으로 장단을 풀어 설명하고, 시김새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 번 함께 불러보았다.</p>		
학습평가	<p>-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p> <p>12일에 공연이 있었다. 짧은 기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이 모였고, 특강이 더해져야 할 만큼 준비를 했었다. 하지만, 정작 무대에 서서는 떨리는 게 당연지사 처음 무대에 서는 이들이야 오죽하랴. 들어주기 어려운 공연을 마치고 나서 모이는 첫 시간이라 그런지 많은 이들이 모이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p> <p>- 교육생 학습 성취도</p> <p>장단으로 학습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던 부분들이 3분박으로 단 순화시켜서 설명하니 학습이해도가 높아졌다. 한국에도 독특한 민요가 있는 것처럼 교육생들의 각 지역에도 독특한 민요가 있다. 그 민요를 불러보고 한국의 민요 또한 불러보며, 문화이해의 스펙트럼을 넓혔다.</p>		

(14) 14차시 : 10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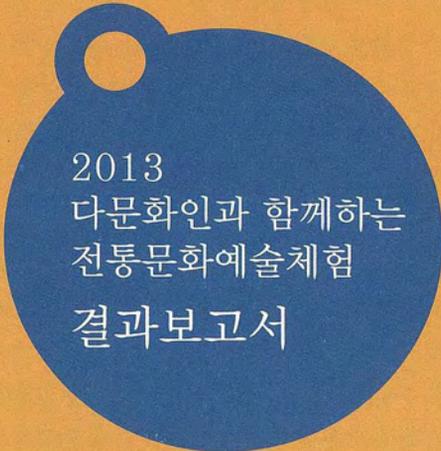
강사명	장보미, 이 송, 서은숙, 배지원, 장보미, 박보슬
교육일자 (시간)	10월 22일 화요일 (13:00~15:00) 출석인원 8명
교육주제	몸이 바로서지 않으면 돌릴 수 없는 '상모'를 돌려보자!
교육내용	<p>- 교육 목표</p> <p>1. 풍물의 꽃 상모를 통해 몸의 원리를 터득한다.</p> <p>- 교육 재료</p> <p>상모, 꽃친, 흑포, 백선</p> <p>- 교육 세부내용</p> <p>상모는 풍물의 기본이다. 선반과 앉은반의 차이를 만드는 것도 이 상모이다. 상모를 쓰는 것부터 쓰고 돌리는 데까지, 원리를 터득하여 빠른 시간 안에 상모를 돌린다. 머리로 돌리는 걸 지양하고 단전에 힘으로, 굴신으로 돌리는 것을 지향한다. 중심과 분절의 원리를 적용한다.</p>
학습평가	<p>-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p> <p>강사의 수와 교육생의 수가 비슷했기에 일대일 수업이 가능했다. 교육생의 손을 잡고 상모가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움직임을 터득할 수 있게 도왔다. 몸의 리듬 또한 3분밖에 근거리고 있어, 교육생들이 낯설어했지만, 경쟁구도를 붙여(끝나고 강사와 교육생이 함께 시연)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못하게 속도감 있는 수업을 진행하였다.</p> <p>- 교육생 학습 성취도</p> <p>저번 시간에 썼던 꽃을 다시 써보라고 했는데 절반 이상이 혼자서 다시 쓸 수 있었다. 허나 상모를 너무 위로 쓰거나 밑으로 써 상모돌리기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혼자 상모를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두 번째 수업만에 상모를 돌린 루비도 있었다. 이는 몸의 균형과 감각, 리듬감이 좋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상모 진자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p>

(15) 15차시 : 10월 29일

강사명	김운태, 이 송, 서은숙, 배지원, 장보미, 윤미정		
교육일자 (시간)	10월 29일 화요일 (13:00~15:00)	출석인원	5명
교육주제	판소리 '사랑가'로 놀아보자!		
교육내용	<p>○</p> <p>- 교육 목표</p> <p>1. 판소리의 음악어법을 익히며, 감정을 표현한다. 2. 판소리 5바탕의 줄거리를 알려, 춘향가의 '사랑가'를 불러본다.</p> <p>- 교육 재료</p> <p>소리북</p> <p>- 교육 세부내용</p> <p>소리를 좋아하는 양춘선 씨의 주문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이었다. 판소리 5바탕의 줄거리를 알고,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성악곡인 판소리 '사랑가'를 불러봄으로써 한국 전통예술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러주는 노래로 감정 이입을 유도하였으며, 판소리 특유의 통목을 쓰는 발성을 기반으로 발성과 감정 이입을 중심으로 교육하였다.</p>		
학습평가	<p>-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p> <p>판소리라는 거대한 산을 두 시간에 압축하여 설명하고 가르치기는 쉽지 않았다. 교육생들은 판소리에 다섯 가지 이야기가 있는지, 흥보와 놀보, 토끼와 별주부가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기초적인 설명부터 필요했다. 가사를 익히기 보다는 리듬과 멜로디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데 주력하였다.</p> <p>- 교육생 학습 성취도</p> <p>한국의 전통성악에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흥미로워했다. 특히 사랑이야기인 춘향의 이야기를 할 때는 각 나라에도 각기 다른 방식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며 자국의 사랑노래를 들려주기도 하였다. 남편에게 들려주면 미쳤다고 할 거라며 이제는 허물없이 강사들에게 농을 건네었다. 통목을 쓰는 방식보다는 각국의 스타일로 판소리를 불러 개성이 있었다.</p>		

(16) 16차시 : 11월 5일

강사명	장보미, 이 승, 서은숙, 배지원, 장보미, 박보슬		
교육일자 (시간)	11월 5일 화요일 (13:00~15:00)	출석인원	6명
교육주제	전통의상을 입고 판굿을 연주한다.		
교육내용	<p>- 교육 목표</p> <p>1. 종강을 맞이하여 전통의상을 갖춰 입고 판굿을 연주한다.</p> <p>- 교육 재료</p> <p>의상, 상모, 꽃친, 백선, 흑포, 뽕과리, 장구, 북, 징</p> <p>- 교육 세부내용</p> <p>전통의상을 입고 운동장에서 판굿을 뛰어 보았다. 머리에는 상모를 쓰고 의상을 갖춰입고, 악기를 땀다. 하나의 소리를 내기 위해 입으로 노래하며 악기를 쳤다. 상쇠의 지휘에 따라 진을 쌓기도, 달리기도, 춤을 추기도 하는 판굿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소속감과 자아효능감이 증강되었다.</p>		
학습평가	<p>- 교육 내용에 대한 강사 자율평가</p> <p>사진 촬영과 함께 진행된 판굿이었다. 늘 판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더 흥미진진해진다. 팔산대의 장기인 다이내믹한 우도판굿, 옷다리풍물을 함께 하며 마지막 인사를 하였다. 모두가 주인공인 지상 최고의 군무 판굿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었고, 정들자 이별인 시간이었다.</p> <p>- 교육생 학습 성취도</p> <p>상모를 쓰고 의상을 갖춰 입고 악기까지 메는 데 소요된 시간이 한 시간 남짓이었다. 익숙하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만큼 정성이 깃든 시간이었다. 함께 판굿을 치는 행위를 통해 이제는 한국의 정서인 '흥'에 대해 깊이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강사들과의 교감을 통해 '정'이라는 정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p>		



2013
다문화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체험
결과보고서